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중동전쟁으로 이곳 L국도 한 때 주유소들이 폐쇄되었었고, 자가용은 물론이고 대다수 서민들의 교통수단인 오토바이 주유를 위해 문 열린 주유소에 몰려가 1-2시간 대기해 겨우 제한된 주유를 하는 시기를 겪었습니다. 현재는 주변국으로부터 긴급 수입 물량을 확보해 숨통이 트인 상황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을 위해 공무원들과 학교는 격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NGO단체 컴퓨터 교실에 오는 학생들 중에 3명이 한국에서 온 단기팀 사역에 동역하느라 3주 정도 수업에 참석 못했지만, 남은 5명 학생들은 임신 한 자매를 포함해서 힘든 중에도 다른 학생들과 오토바이를 같이 타고 와서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였습니다. 주유가 힘들었던 3월 중순에 수업을 잠시 쉬었었는데 4월에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번 학기 글로리 학교 사역은 새로운 컴퓨터 과목(파이썬)을 고등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C국 대학에서부터 동역자로 지낸 J선생님 가정과 교제하는 중에, 그 분들의 기숙사(센터)사역에 협력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학생들 4명은 양육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대학생들입니다. 지금 생활하고 있는 센터가 우기에 침수되는 등의 이유로 이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교 가까운 위치로 조만간 이사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혼들을 키우는 일에 동역하도록 인도하시니,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 5월에 졸업할 글로리학교 고3학생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졸업 할 수 있기를.
2. NGO단체 컴퓨터수업에 오는 대학생들이 오토바이 주유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3.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늦어지는 센터의 이사가 순조롭게 될 수 있기를.

L 국 김종기,조윤경 드림